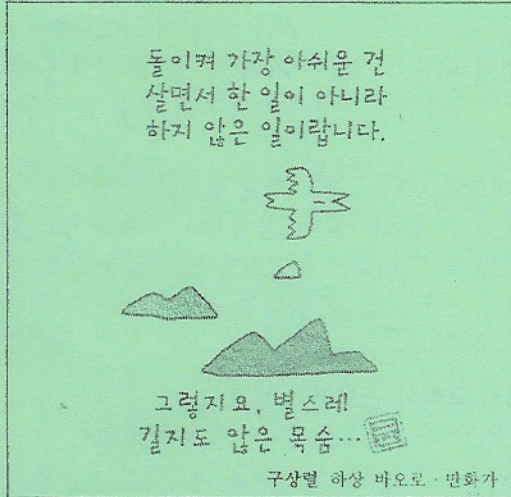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9주일(예수성심 성월)
제28권 27호(가해) 2008.6.1

[묵상]



별스레 길지도 않은 인생을 살면서
머릿속에 맴도는 걱정거리도 참 많다.
사람의 걱정거리를 분석하여 보면,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며,
22%는 걱정 안 해도 될 사소한 사건들이고,
4%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다.
나머지 4%는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사건들이다.
결국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들이다.
(어니 J. 겔린스키의 'Don't hurry, be happy' 중에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무시하라.
고민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 같이 않는가?
그러므로 고민하고 싶으면 단 10분만 하라.
하지 않은 일을 아쉬워하기 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人)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매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중돈 스테파노, 고준희 제임스, 심재순 (생)고천용과 규재 체칠리아 가정, 손세민 손지민 아네스
주 일 낮 미사	(연)김중돈 스테파노, 이영자 마리아, 이현호 요한 고준희 제임스, 정형두 바오로, 황만근 베드로 천서인 레지나, 박대수 라자로, 이성녀, 심재순 (생)고천용과 체칠리아 가정, 김옥 안토니오 권진열 피데스 가정, 이석제 베드로 가정 임베르나르도와 에메레타 가정, 이진향 아네스 이종민 요셉, 이종원 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김광일 스테파노와 인자 요세파나 가정 구마리아네 수녀님,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신명기(Deuteronomy) 11,18,26-28,32

화답송 ◎주여, 내 몸을 막아주는 큰 바위, 나를 살리는
굳은 성채 되소서.

<전례성가80, 연중 제9주일 A해>

◎주여, 당신께 의탁하는 이 몸, 끝내 부끄러지
않으리이다. 당신의 정의로 나를 구하소서.
당신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시고,
날 구하시기를 더디 마옵소서.◎

◎내 몸을 막아주는 큰 바위, 나를 살리는 굳은
성채 되소서. 내 바위 내 성채는 당신이시니,
당신의 이름으로 날 이끌어 데려가 주소서.◎

◎당신의 종 위에 당신의 얼굴을 빛내어 주시고,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께 바라는
너희가 모두, 굳세게 굳세게 마음들을 가져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3,21-25,28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7,21-27

영성제송 주 하느님, 주님께서 응답해주시겠기에, 재가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의 귀를 기울이시어,
제 말씀을 들어주소서.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99	312
봉헌	378	269,257
성체	377	292,295
파견	372	201

13. 선교(宣敎)하는 교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지닌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
께 나눌 때 기뻐한다. 좋은 물건, 희망이 넘치는 기쁜 소식, 뛰어난
사상이나 아름다운 감정 등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과 나
누려는 마음은 인지상정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그 무
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화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주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
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
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며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
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
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18-20).

▶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하느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성전인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해 보임으로써,
온 인류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인도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교회의 선교 사명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파견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고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셨다.(=>예언직)
또한 기도와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길을
보여 주셨으며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하느님께 가장 완전한 제
사를 봉헌하셨다.(=>사제직) 그리고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봉사하셨다.(=>왕직, 또는 봉사직)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러한 사명에 제자들도 동참하도록 분
부하셨고, 직접 그들을 세상에 파견하셨다.(마태 10,5-14; 루카
10,1-11 참조) 이와 같이 선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
적인 사명이기에 교회는 미사가 끝날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함
시다.” 하면서 모든 신자를 삶의 현장으로 파견하는 것이다.

선교의 목적은 단순히 세례를 베풀어 신자 수를 늘리는 것
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친교에 참
여하게 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
체는 세상의 어느 모임도 따를 수 없는 형제적 사랑과 나눔으로
일치를 이루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
여 주어야 한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에게 선
교 활동의 좋은 귀감이 된다.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
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
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사도 2,46-47)

◆(CBCK 제공 / 계속)

반석 위의 집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둘 중에서 축복을 원합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은 제1독서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따르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곧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과 정신에 새기고 손에 표정으로 묵고 이마에 표지로 붙이면 축복의 길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오늘 제2독서에서 이 두 번째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로마 4,24). 곧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하느님의 의로움이 머문다는 것이요,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로마 5,2,5).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여정을 하는 동안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신앙인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21). 여기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곧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지 내가 바라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마태 7,24,26).

예수께서 선포하신 기쁜 소식을 듣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정 믿음, 희망, 사랑의 삶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부활 이후에 하느님께 봉헌하는 이 집을 우리는 이 지상 삶 동안 계속해서 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더욱 더 굳건하게 서 있게 해 줍니다.

향주삼덕(믿음·소망·사랑)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이 하느님의 계명을 대할 때,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벌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고 한다면, 이는 하느님보다 자신의 감정을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더 중시하는 교만한 모습이기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변종찬 마태오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정미영 미카엘라	최진수 에우세비오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신덕례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김제영 프란치스코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1독서자	우경석 사도요한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박경리 엘리사벳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서용숙 에스텔	권순길 세실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1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 6월 예수성심 성월 ☆☆☆☆☆	◆ 병자 영성체 : 5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성모신심 미사 : 7일(토) 오전 8시30분
	◆ 성 시간 : 12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진행 : 토런스 서구역

-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시작합니다.
 - 등록기간 : 오늘 주일(1일)~8일(주일), 미사 전·후
 - 대 상 : 유치부(K)~12학년까지
 - 등록비 : 첫째아이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아이 부터는 무료(자모회비 : 한 가정당 \$40)

- ◆ 백삼위 본당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6월3일(화)~6월8일(주일)
 - 시간 : 오후 7시~10시(주일은 오후 2시~6시)
 - 지도 : 방부역 요한 신부(사도 성요한 수도회)
 - 참가비 : \$20(교재비 포함)
 - * 세미나 중 평일 저녁미사가 매일(화,수,목,금) 오후 7시30분에 있습니다.(금요일 아침미사는 없습니다.)

- ◆ 2008년 중·고등부 찬미의 밤(Praise & Worship)
 - 일시 : 6월13일(금), 오후 7시30분~10시, 강당
 - 주제 : "Selfless"(나를 버려라)
 - 밴드 : 백삼위 주일학교 SOEL 밴드
 - (Sound Of Euphonic Loudation)
 - * 중·고등부는 물론 어르신들도 오셔서 봐주세요!

- ◆ 초,중,고등부 세례 및 첫영성체
 - 참 고 : 6월14일(토) 오후 3시
 - 총연습 : 6월14일(토) 오후 4시
 - 세례식 : 6월14일(토) 오후 5시(유아세례도 있습니다.)
 - 첫영성체 : 6월15일(주일), 낮미사 중(11시)
 - 축 하 식 : 6월15일(주일), 낮미사 후, 강당

♥ 혼 인 공 시 ♥

백삼위 본당에 6월 중 두 커플의 혼배미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들이 혼인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 혼배 예정자 : 한승일 에릭 & 윤선영 리드비나

- 부모님 성함 : 한상우 라파엘 & 노순진 클라라
- 윤남섭 요셉 & 주옥금 마리아
- 일시 : 2008년 6월21일(토) 오후 3시 30분

♡ 혼배 예정자 : 강호광 스테파노 & 신정원 마리아

- 부모님 성함 : 최미열 클라라
- 신순철 가브리엘 & 신덕례 테레사
- 일시 : 2008년 6월28일(토) 오후 4시

◆ 제8회 M.E. 친선 골프대회

- 일시 : 6월18일(수), 티오프 오전 11시(샷건 플레이)
- 장소 : 로스 버디스 골프코스(R.P.V.)
- 주최 : 남가주 한인M.E.운동본부
- 연락 : 오영섭 스테파노 + 요안나 본당 M.E. 대표부부 ☎ 310-922-1502 (많은 상품이 준비되었습니다.)

◆ 세계M.E.(WWME) 40주년 기념 컨벤션

- 일정 : 6월27일(금)~29일(주일), 캘리포니아 온타리오
- 문의 : 오영섭 ☎ 310-922-1502

◆ 빈첸시오회에서 안쓰는 묵주 등 성물을 수거합니다.

- 각 가정에 사용하지 않는 묵주나 성물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 남미에서 선교하는 한국 수도원에 보내드립니다.
- 수집함 : 사무실에 비치(문의 : 이안셀모 ☎ 908-8823)

◆ 백삼위 마라톤 동호회 주말훈련

- 시간 : 매주 토/일 오전 6시부터
- 장소 : Pennsylvania Av.(PCH~256th St.)
- 누구나 환영, 걷기만해도 됩니다.
- ☎ 코치 최현찬 안드레아 938-0848. 김철만 요한 740-1502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6월1일(주일) : 고천용 & 고규재 체첼리아 가정의 전 신자들과 함께 하는 나눔의 자리(떡·김밥)를 마련했습니다.
- 6월8일(주일) : 토런스 동1반 (카레라이스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김대우	김성현	김옥보	김주량	김현숙
	모은기	민경근	박선희	박영룡	박주현	엄정자
	오명섭	오세원	오수인	오태환	우영주	우영희
	육재민	이경태	이병우	이석진	이용식	이효세
	정기은	천광락	최원석	신영애	버	
	합계 : \$2,620					
미사헌금 : \$2,686.25						

성전헌금	강태홍	김대우	김성현	김옥보	김주량	김현숙
	모은기	민경근	박선희	박영룡	박주현	엄정자
	오세원	오수인	오태환	우영주	우영희	육재민
	이경태	이병우	이용식	이효세	정기은	천광락
	최원석					
	합계 : \$1,690					
감사헌금 : 홍윤정						

이 주간의 축일 (6월1일~6월7일)

축하합니다

- 1일 : 유스티노 순교자, 팜필로 사제 순교자, 유벤시오 순교자, 에네코 원장
- 2일 : 마르첼리노 순교자, 에라스무스 주교 순교자, 에우제니오 1세 주교 순교자, 포티노 주교, 블란디나 동정 순교자
- 3일 : 르왕가의 성 가롤로 순교자, 체칠리오 사제, 리파르도 원장, 클로틸다 황후, 바울라 동정 순교자, 올리바 동정녀
- 4일 : 프란치스코 중거자, 퀴리노 주교 순교자, 윌터 원장, 사투르니나 동정 순교자, 부리아나 동정녀
- 5일 : 보니파시오 사제 순교자, 도로테오 사제 순교자, 치리아 순교자, 발레리아 순교자
- 6일 : 노르베르토 주교, 펠립보 부제, 바울리나 순교자, 코카 동정녀
- 7일 : 바울로 주교 순교자, 로베르토 원장, 안토니오 주교, 포타미의나 동정 순교자

남가주 소식

◆ 성령안의 치유피정

- 일시 : 6월12일(목)~15일(주일)
- 장소 : 성삼 성당 (1230N. San Fernando Rd. LA)
- 강사 : 정중규 클라로 신부 외 교영민, 정구중, 김찬도, 두현자
- 참가비 : \$30(간식제공) * 시간문의 ☎ 323-221-8874

◆ 월필호 요한 몬시뇰 사제수품 50주년 금경축 미사

- 일시 : 6월15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 성크리스토퍼 한인천주교회 ☎ 626-960-5647

◆ 미주 재속 가르멜회 성소 안내

- 자격 : 세례성사를 받은지 3년 이상, 견진성사를 받은 55세 이하, 법적, 지적, 윤리적으로 건강한 신자
- 성소식별 청원자 교육 : 6,7,8월 월모임 통해 교육
- 모임 : 매월 둘째 주일 오전 9시~오후 5시
- 장소 : 521 N. Euclid St. La Habra, CA 90631
- 문의 : 유철희 바오로 ☎ 310-320-3697

◆ 청소년들을 위한 꽃동네 Summer Camp 피정

- 일시 : 6월26(목)~29(주일), 3박 4일
- 대상 : 7학년~12학년
- 참가비 : \$120 ☎ 951-302-3400

◆ 남미 의료 봉사단 모집

- 일시 : 7월7일(월)~16일(수), 에콰도르 파야킬
- 지도 : 이영찬 사도요한 신부(LA 성 아그네스 성당 주임)
- 참가비 : \$1500 ☎ 213-272-7404 김안나
(의사/간호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양금 안나 518-3041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김찬구 요한 701-6343 6/14(토) 오후 7시, 강당
	3	한길선레 스텔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텔라스티카 782-1025 6/13(금) 오후 8시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김충섭 마틴 533-1435 6/21(토) 오후 7시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최상만 사비노 540-9230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6/10(화) 오전 10시30분, 월슨 파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엄영숙 마리아 373-5662 6/13(금) 오후 7시
	2	임진희 한나 720-7898	양희숙 오틸리아 328-7795 6/11(수)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안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6/13(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권오상 바오로 257-8416 6/13(금) 오후 7시
	3	천광락 야고보 408-3175	천광락 야고보 408-3175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주다니엘 530-3470 6/14(토) 오후 7시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주다니엘 530-3470 6/14(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안민수 배드로 544-6807 6/13(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김택수 프란치스코 544-9532 6/13(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임엘렌 373-1690 6/4(수) 오전 10시30분

5월 성모성월을 보내며 성모님께 드리는 글

“속이 맑은 장미 한 송이”

엎디어 순종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고개 세우려고
평생을 노력한 저는 한없이 부끄러워하나이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
저는 주님께서 저와 같이 하시는 믿음 희미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입으로만 하니
복이 없는가 하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무염시태(無染始胎)의 마리아님
몽소승천(蒙召昇天)의 마리아님
불쌍한 저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우리는
보는 만큼 보고 있다고
들리는 만큼 들린다고
믿는 만큼 믿는다고
아는 만큼 안다고
그만큼만 말하고 살지 않나이다.

보이는 것보다 더 보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데도 잘 들리는 것처럼
믿지 않는 데도 잘 믿는 것처럼
아는 것 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척하며 살아가나이다.

나무는 뿌리만큼 자라고
꽃은 뿌리만큼 향기롭듯이
장미뿌리에서 찬란한 순명
검손송이를 보게 하소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뜨거운 사막을 무릎으로 기는 마음이
뿌리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맑은 영혼이
거짓이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장미 한 송이를
온 몸을 엎디어 눈물에 적시어 바치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무염시태의 마리아님
몽소승천의 마리아님
가련한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2008년 5월 31일 성모의 밤에

◆PV 1반 / 최진수(예우세버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김춘수 / 시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즉, 나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고 인지한다면 그들은 나에게 더없이 소중한 것이 된다.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존재하는 몸짓일 수도 있다. 단지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내가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다니? 참 쓸쓸한 애기다.◆